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불 붙은 서울 보궐선거 與野 ‘네거티브’ 시동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 예비후보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경선 기간 선두권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행동이 본격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당 예비후보와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가 우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면서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2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7%)와 3차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35.7%)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원팀전략’에도 ‘여론 열세’ 우상호, 박영선 견제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 선두권’ 오신환·오세훈에 ‘집중견제’

우 예비후보의 경우 나 예비후보(24.7%), 안 대표(31.6%)와 3차 가상 대결 시 26.7%로 다소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4~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예비후보(37%)는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19%)와 안 대표(31.6%) 간 3차 가상 대결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21.8%), 안 대표(34.5%) 간 3차 가상 대결에서 27.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른바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상호 비방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우 예비후보가 박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지지율을 보이자 네거티브 공방도 나오는 모습이다.

최근 우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보듬자’는 취지로 발언한 박 예비후보에 대해 “이 말은 내가 볼 땐 거두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박 예비후보가 밝힌) 민주당이 좀 더 포용력 있게 가자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서울 마포구 북합문화공간 그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청년창업 및 일자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왜 그 대상이 금 예비후보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안 대표가 민주당에 함께 한 점을 언급하며 “금태섭을 끌어안는다면 안철수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내 경선에서 선두권에 있는 나 예비후보는 오신환·오세훈 예비후보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최근 나 예비후보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 공약을 두고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을 합쳐 포퓰리즘 공약 낱말을 겨냥한 비판’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도 지난 8일 후보 기호 추첨을 위한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나 예비후보를 겨냥 “강성보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당을 운영한 결과가 지난해 총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예비후보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적한 ‘총선 책임론’을 두고 “오 후보야말로 당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의 직을 걸었다. 스스로 물러난 시장이 다시 표를 구한다는 것은 본선에서 경쟁력, 명분이 없다”며 반박했다.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시장직을 내건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밖에 조은희 예비후보도 전날(8일)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들이 다 참패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는 혼자 살아남았다”며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DNA가 저에게 있다”며 다른 세 후보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한달 생활비 60만원 아닌 300만원 정도”

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병가 스페인여행엔 “결과적 부적절” 후원금 1000만원 의혹은 전면부인

야당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황 후보자 관련 의혹은 ▲월 생활비 60만원 논란 ▲병가 내고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사용 의혹 ▲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논란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월 생활비 60만원’의 경우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영수증을 보면 2019년 황 후보자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다. 여기에서 아파트 월세, 보험료, 예금, 채무상환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 세 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720만원이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황 후보자의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며 “통신비와 주유비는 정치 자금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통신비, 기본적인 식비 등이 월 100만원 이하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황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우리나라 소득하위층 20%보다 절반”이라며 “월 6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한 사람이 해마다 가족여행을 갔다. 어떤 달에는 두 번이나 갔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한 달 생활비) 60만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실제로 학비 빼고 (매월) 300만원 정도 나온다”며 “학비, 집세 빼고 최소한 우리가 가져 써야 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국회 본회의에 병가를 내고 불출석한 뒤 스페인으로 가족여행 간 데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래도 변명을 하자면 처음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에 물었는데 추경 합의가 어려우니까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나갔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2년간 총 1000만원 후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원금을 줬다는) 그 사람은 전혀 모른다”며 “제 지인이 후원금이 안 차니까 부탁해서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 재직 당시 과감기관인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후원금 받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밖에 황 후보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스스로 썼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황 후보자 지도교수가 지난 2017년 2000만원을 받고 국토위로부터 발주받아 만든 연구용역보고서가 황 후보자 논문과 선행학습부터 결론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차용한다거나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할 수 있는데 실제 논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논문) 표절률은 25%를 넘어야 하는데 (제가 작성한 것은) 5% 미만이다. 제가 쓴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영훈 기자

##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 원료대체 R&D 추진

산업부, 2050 탄소중립 추진

석유화학업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합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분야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화학 탄소제로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과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현 금호석유화학 사장),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한화토탈 김형준 부사장, 롯데케미칼 김연섭 본부장, LG화학 박준성 전무, 여천NCC 강기필 상무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출범식 참석에 앞서 페플

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 및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SK환경과학기술원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K는 올해 안으로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실제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사용 가능성 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금융·규제특례 등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도 개별 업체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업계 최초로 작년 7월 ‘2050 탄소중립성장’을

선언하고,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RE 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도 올해 1월 ‘2030 탄소중립성장’을 선언, 친환경 사업 등에 5조원을 투자하는 등 2030년까지 친환경 부문 6조원 규모 성장 목표를 밝혔다. SK종합화학의 경우 그린중심의 다편체인지를 목표로 친환경 제품 비중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천NCC는 에너지효율 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와 공정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며, 한화토탈은 프랑스 토탈사의 2050 넷제로 선언에 맞춰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택배종사자 안전·건강 보호조치 점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주요 택배사의 택배종사자 안전·건강 보호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설 성수기 안전과 건강 관리,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택배사들은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 분류지원인력

6000명 총원이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동승인력 증원, 택배차 증차, 택배기사 배송물량 점검·조정 등 업무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는 택배기사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한진택배는 올해 3월 도입 예정이다. 로젠택배는 현재 심야배송을 하지 않는다.

택배사들은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안전보건조



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택배 4개 사 산재보험 적용률은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19.36%였으나, 올해 1월 택배사 자체조사

기준으로 41.96%로 높아졌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며 “택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며, 이제는 이러한 조치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